특정감사·유치원 입학 추첨 문제…공·사립 차별지원도 개선을

방과후 과정 운영비 월 30만원 태부족

감사때 3년치 회계장부 요구 "답답해"

"감사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최근 3년치 회계장부를 요구하는데 3년 전 자료는 없는 게 많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답답하다. 거짓으로 만들 순 없지 않은가."

"방과후과정 운영비로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전담교사 인건비다. 하지만 이 것으로 전담교사를 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정규교사에게 맡기면 업무가 크게 늘어 힘들어한다. 원아모집도 힘든데 이중고다."

지난 17일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광주 유아교육 선진화 워크숍'이 열렸다. 광주일보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교육당국과 일선 현장의 유치원장들이 유아교육 정책과 방향에 대해 의견과 애로사항을 나누는 소통의 자리였다.

광주시교육청 김경례 유아교육팀장이 '광주 유아교육정책의 방향'을, 정연구 감사4팀장이 '사립유치원 감사계획' 등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 했다. 황정련 신세계유치원 원장이 '푸드 아트 테라피'를, 김경숙 아마란스유치원 원장이 '창의성 교육'을, 문선영 선일유치원 원장이 '명화감상을 통한 감성키우기' 등을 교육과정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와 공·사립 간 차별 지원, 방과후학교 종일반 운영, 유치원 입학 추첨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워크숍에 참가한 한 원장은 "병설유치원 통학차량과 기사 인건비 지원 등 공립에 대한 혜택이 많다"며 "특히 변두리가 아닌 도심 병설유치원도 통학차량을 운영하며 원아 1인당 차량운영비로 11만3000원을 소요하는데, 타당한 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원장은 "유치원 우수사례 시상은 공립 유치원들 잔치다"며 "동기부여 차원에서 공·사립 나눠 시상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유치원 입학 추첨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가 밤샘 줄서기 등 폐해를 없애고자 원아모집을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바꿨는데, 학부모·유치원 모두 불만이 높다는 지적이다. 학부모는 원하는 유치원에 들어갈 확률이 낮아지면서 10곳에 원서를 내는가 하면, 추첨에 온 가족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유치원은 중복 지원자들 탓에 미달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김경례 광주시교육청 유아교육담당 장학사가 광주 유아교육정책의 이해와 방향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지난 17일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4 광주 유아교육 선진화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행사는 광주일보사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시교육청이 후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우수사례 발표

'푸드 아트테라피' 황정련 신세계유치원장

"음식 만들며 정서지능 높여"

광주 신세계유치원의 특별한 프로그램은 '푸드 아트 테라피'다. 오감을 통해서 음식재료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는 활동 속에서 자신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 의미를 부여하고 심리적인 치유와 힐링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재료 등을 활용해 만들기 때문에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고, 작품의 과정 속에서 느낌을 함께 나누며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통해 남과 다르다는 차이를 인식하고, 작품 속에 담긴 의미를 의사소통을 통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기를 수 있게 한다.

먼저 연령별로 연간 월별 계획을 세워야 한다. 팝콘으로 벚꽃 꾸미기(4월), 내 마음 콩으로 놓아보기(5월), 과일화채·과일꼬치 만들기(7월) 등을 통해 직접 맛볼 수 있는 경험을 한다.

음식이라는 친화적 소재로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친구·가족·사회구성원과 느낌을 나누고 식습관 개선, 생각·창의력을 이끌어 정서 지능을 높였다.

'창의성 교육' 김경숙 아마란스 유치원장

"놀이로 창의성·감수성 신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신나는 놀이로 아이의 숨겨진 창의성과 감수성을 쑥쑥 키워줘야 한다.'

아마란스유치원은 창의성을 생활 속에서 놀이로 접근하고 있다. 유아 발달과정에 맞춰 생활속 자료를 활용해 도형·신체·조작·소리·언어 창의성을 키우고, 상상력·독창성·정교성·융통성 등을 기른다.

사고력 훈련기법으로는 마인드맵과 브레인스토밍, 색다른용도법, 강제결합법, 결점·희망열거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신문지를 이용한 창의활동을 예로 들면 창작동화 그림을 신문지를 활용해 입체화하고, 신문지 살펴보기(시각)·구겨서 소리 듣기(청각)·찢어보기(촉감) 등 오감으로 신문 읽기도 가능하다. 신문지의 색다른 용도법으로 빗자루·야구방망이·치마·안경·공 등을 만들거나, 신문지 위에 많이 올라가기·신문지로 글자쓰기, 신문지 눈싸움 등 게임도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을 이용하면 친근감을 주고, 또 재미있는 방법을 상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명화감상' 문선영 선일 유치원장

"생활 속 미래 예술인재 양성"

선일유치원은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위치해 광주시립미술관·비엔날레전시관·국립광주박물관 등 주변에 문화인프라가 풍부하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 끝에 '명화감상을 통한 유아 감성 키우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생활 주제에 따른 명화감상 활동을 통해 아이가 미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예술적 표현능력을 기르며, 작품에 담긴 내용과 생각을 생활 속에서 즐기는 미래인재 양성이 목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성패는 철저한 사전 준비다. 먼저 연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생활주제에 관련된 명화를 생활주제에 맞춰 월별로 선택해야 한다.

명화는 교과과정에 등장하는 김홍도·신윤복·장욱진·고흐·샤갈·피카소 등 유명 화가의 작품들로 구성하는 게 좋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데다 작품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단원 김홍도의 '서당'을 감상하며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현재의 교실과 비교해보고, 밀레의 '어머니와 아들'을 보며 어머니와 나의 모습 그리기 활동을 한다.

주제발표-광주유아교육 정책 방향

재무회계 규칙 관련 연수 年 6차례 실시

김경례 광주시교육청 유아교육팀장

정부는 지난해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2017년이 지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고, 자율형 유치원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5개년 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유아교육의 국가 완전 책임제다. 주요 정책으로 ▲유아교육 기회 확대 ▲유치원 운영 효율화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교원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유아 무상교육 지속 확대, 유치원 정보공시제 정착, 재무회계 규칙 도입, 유아교육 교재교구인증제 도입, 방과후과정 전담인력 배치 등 내실화, 유치원교사 근무여건 개선,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강화 등 25개 핵심과제를 수행한다.

광주시교육청도 이 틀에서 광주의 특성에 맞춰 유아교육정책을 편다.

먼저 지난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재무회계 관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무회계 규칙 관련 연수를 연 6차례 실시할 방침이다.

방과후과정 종일제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교육부가 '유아 1인당 1시간 이내, 1과목만 할 수 있다'고 강조함에 따라, 시행 2년째인 올해 지도감독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원연수를 연 4차례 실시할 방침이다.

우수 사립유치원이 거점유치원 기능을 수행하고, 찾아가는 장학컨설팅도 무료로 운영한다. 공·사립간 유치원·어린이집간 협력을 위한 지역별 협력네트워크를 운영할 방침이다.

주제발표-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계획

교육과정·인사관리 등 5~6월께 감사

정연구 광주시교육청 감사4팀장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공공감사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25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 이어 올해 30곳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감사가 껄끄럽고 부담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주먹구구식 회계·운영을 바로잡을 기회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이 감사를 하지 않으면 감사원이나 교육부 등 상급기관에서 실시하게 된다. 상급기관이 감사를 하면 그에 따른 처분은 훨씬 강도 높을 것이다. 유치원 사정을 아는 교육청이 감사를 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본다.

올해 감사는 지난해 수준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감사의 목적은 사립유치원 예산 집행·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책무성 강화다. 재무·회계(예산회계)와 교육과정, 인사관리, 시설 등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실태 등 최근 3년치를 점검한다. 올해는 5~6월께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감사 결과, 통학차량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거나 지입차량의 임차계약을 하지 않는 등 통학차량 운영 관리 소홀, 설립자 변경 인계인수 부적정,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관리 소홀, 직원 복무관리 소홀 등이 지적됐다.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로 분류돼 임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겸직이 금지된다.

교육부 감사에서는 유아학비 지원금의 유치원 인수자금 유용, 교원 정년초과자 처우개선비 허위 수령, 유치원장 자격 빌려 설립인가 획득 등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